

●농림수산물부 소식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 명칭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위생관리 제도 정비

농림수산물부는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물 검사 및 영업자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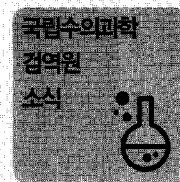
특히, 법률 제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여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위생검사 및 관리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생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작업장 정기심사 등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법제화하였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을 제한하며,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관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수입축산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영업자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되는 축산물은 농식품부장관이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으로 명문화하였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해 매년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정기 심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11년부터는 정기 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

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운용실태를 조사·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HACCP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대폭 정비하여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률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업소 간판의 제거, 시설물의 봉인 등 영업소 폐쇄조치의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였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영업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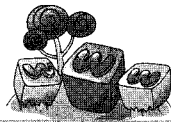
◎설립 100주년 맞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모저모

'건강한국, 청정한국' 추구 제 2의 도약 다짐

●새로운 100년 청사진 준비

검역원은 현재 본원의 3부 19개과 및 서울, 인천, 중부, 호남, 제주 등 6개 지원과 12개 사무소에 총 59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수의연구직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전문 인력으로 조직된 검역원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



▲ 수의과학검역원 100주년 기념식 - 장태평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의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해온 검역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사진 상) 검역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건강한국! 청정한국! 제2의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 하)

축산식품 위생·안전 관리 ▲첨단수의과학 기술 개발연구 ▲동물 용의약품 검정 및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검역원의 모체인 최초의 수의기관은 외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됐지만 자체적인 성장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의 가축질병 방역 체제를 갖추고 수의과학기술을 개발시키고 있으며 동물질병 통제

의 역할을 넘어서 동물보호 및 축산식품 안전, 인수공통전염병 등 동물 복지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검역원은 향후 한국의 수의학 발전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글로벌 검역원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기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신기술 개발에 더욱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뷰]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원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힌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를 위해 “선진검역, 선진방역, 선진 위생관리 체계 등을 실행 목표로 국민건강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검역원의 6대 미션인 검역검사, 가축

방역, 축산식품 위생관리,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동물보호 등의 업무 추진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검역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질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검역원은 과거 1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 100년, 한국의 수의학 발전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종합적인 수의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은 임기동안 수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선배들이 노력과 땀으로 일궈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실천' 첫 삽으로 농촌환경 정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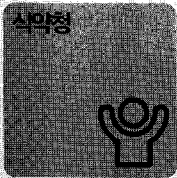
농진청 직원 100여명 푸른농촌 시범마을 첫 환경정화 봉사활동

●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7월 11일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인 김포시 월곶면 고마리를 방문하여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의견수렴과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깨끗한 농촌만들기를 위해 전국 270여 시범마을 중 처음으로 방문하여 실시한 이번 봉사활동은 김재수 청장을 비롯한 직원 100여명이 국민의 휴양·녹색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농약병, 폐농자재,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1톤여 쓰레기를 수거하



였다. 농촌진흥청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실천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동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청, "국민이 알기쉬운 식품안전정보 제공한다"

식품안전정보센터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16일(목) 식품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종로구 보령빌딩 10층)를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주요 역할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및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내용으로 식품위해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보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식약청은 2008년 12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식품정보팀 10명, 추적관리팀 6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대 센터장에는 그동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기획처장으로 활동해 온 문은숙 박사가 선임됐다.

문은숙 센터장은 미 오레곤주립대에서 소비자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그동안 식품관련 위해정보와 관련된 자문위원 및 소비자정보제공 활동, 국제기구 활동 경험 등 '전문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식약청은 개소식 당일 '식품안전정보센터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상석 교수(이화여대 식품공학

과)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신동화(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을 좌장으로 식품안전정보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초대 문은숙 센터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정보 수집으로 식약청의 기준·규격 개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생각하고 산업체를 대상으로 이력 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의 :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aT, 교보생명과 '고객만족 경영' 교류협약

"맞춤형 컨설팅으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

•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CS 선도기업인 교보생명(사장 신용길)과 2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고객만족 선도경영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aT 윤장배 사장은 "aT가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교류협약은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며 "교보생명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aT의 고객만족 역량이 더욱 신장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aT 임직원들은 향후 1년 동안 교보생명의 다윈(DA-Win)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응대요령, 전화예절 등 사례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aT 관계자는 "aT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CS교육에 민간기업의 선진화된 고객만족경영 노하우를 접목시킴으로써 앞으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